

碩 士 學 位 論 文

# 일본 신세대 통신언어의 고찰

指導教授 李 昌 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承 嬉

2006年 8月

# 일본 신세대 통신언어의 고찰

指導教授 李 昌 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承嬉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8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일본 신세대 통신언어의 고찰

金承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李昌益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산업이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히 보급되면서 언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통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고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과 함께, 인터넷 통신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독특한 형식의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났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게시판, 대화 방, 웹 일기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 언어의 음운 또는 형태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특수 기호 등을 포괄하는 것을 ‘통신언어’라고 정의를 내리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신세대들이 실제 통신상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분석을 통하여 통신언어의 특징과 일본신세대들의 사고를 고찰하는데 있다.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언어학적 특성을 ‘음운·표기’, ‘형태·통사’, ‘어휘’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음운·표기’면에서는 음운교체, 음운첨가, 음운탈락, 오타의 확산, 기호를 이용한 적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형태·통사’면에서는 ‘통신상에서의 신어’, ‘문장 줄이기’, ‘어순 바꾸기’가 ‘어휘’면에서는 ‘의미의 변화’, ‘외래어·외국어 사용’, ‘은어 사용’이 통신언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

※ 본 논문은 2006년 4월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파악되었다.

특히, 최근 인터넷 통신에서 눈에 띄는 것이 ‘오타의 확산’이다. 메일 또는 대화 방, 게시판 등은 그 자체가 문법체계나 표현방식에 대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것 보다 키보드를 누르는 것이 속도 면에서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오타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에 의한 오타가 재미를 추구하는 통신화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의도적으로 오타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통신언어의 사용은 통신언어에 익숙한 통신화자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유희로서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통신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암호화도 같아 쉽게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어를 접하는 일본어 학습자 또한 이러한 통신 언어와 문법 규범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통신언어는 기성세대들로부터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어법’을 산출해 내고 있다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통신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조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언어를 창조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해 가고 있다. 통신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들은 단순히 휴대 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신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통신에 의해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는 신세대 특유의 경향과 현대사회의 움직임, 현대적 특징의 상호작용이 신세대 인터넷 사용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목 차

국문초록 .....	i
<b>I. 서론</b>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3
1.3. 연구기대 및 효과 .....	4
<b>II. 통신언어란</b> .....	7
2.1. 인터넷과 언어생활 .....	7
2.2. 통신언어 발생배경 .....	8
2.3. 통신언어의 기능 및 특징 .....	12
<b>III. 통신언어 사용실태와 분석</b> .....	24
3.1. 음운·표기론적 실태와 분석 .....	24
3.2. 형태·통사론적 실태와 분석 .....	32
3.3. 어휘론적 실태와 분석 .....	38
<b>IV. 결론</b> .....	42
参 考 文 献 .....	44
Abstract .....	46
부록	

# I. 서론

## 1.1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산업이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히 보급되어 오면서 언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통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고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과 함께, 인터넷 통신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독특한 형식의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났다. 또 새로운 문자형식인 그림문자(絵文字)도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고 독특한 통신언어를 만들어 내는 신세대들은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말을 거둬들이기보다는 그림문자나 표정문자라는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그리고 오타나 변형된 언어를 사용하고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러한 표현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BBS(게시판)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퍼져 새로운 표현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대익명 게시판 ‘2ちゃんねる’에서 탄생한 『電車男』을 들 수 있다. 『電車男』은 2005년 2월 50만 부를 넘은 베스트셀러<sup>1)</sup>로, 2004년 3월부터 실제 ‘2ちゃんねる’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그대로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電車男』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656 名前: Mr.名無しさん 投稿日 :04/03/16 20:06

> 電車男

待って。そのカップは何個だ?

---

1) 諸橋泰樹 (2005), 「電車男現象」 『月刊 言語』 7月号, 大修館書店 p.34

---

661 名前: Mr.名無しさん 投稿日 :04/03/16 20:11

電話だ。電話を汁<sup>2)</sup>!

素的なカプー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みたいな感じで相手の感性を響める。  
で、いつもあの電車使われるんですか?みたいな世間話へ持っていきます!

---

665 名前: 電車男 投稿日 :04/03/16 20:13

おまいら<sup>3)</sup>... 本当にありがとう

》 656

カップは二個でした

漏れ<sup>4)</sup>のスペックって...

一言で言うと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電車男』은 게시판에서 사용하던 통신언어가 그대로 나타난 소설이기 때문에 통신언어를 모르고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은 인터넷 통신을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통신언어를 모르는 독자를 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히트했다는 것은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50만 명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발생한 통신언어가 일상생활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언어는 그것에 익숙한 통신화자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유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통신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암호와도 같아 쉽게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논문을 통해 신세대들이 실제 통신상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

---

2) ‘しろ’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ろ’와 비슷한 가나 ‘る’로 교체한 후 ‘汁’라는 한자로 변환한 것이다.

3) ‘お前ら’의 변형

4) ‘おれ’의 의미로 첫 음절의 음소가 /o/일 때 자음 /m/을 추가하는 현상이 자주 보인다.

는지 실태분석을 통하여 통신언어의 특징과 일본신세대들의 사고를 고찰하고자 한다.

## 1.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정복(2003)은 인터넷 통신언어란 전자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전자통신이라고 하면 컴퓨터 통신,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나 PDA 등의 다른 디지털 매체의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sup>5)</sup>

물론 전자통신에서 사용되는 통신언어의 세계 전부를 바라보면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전자게시판(BBS), 대화방(chat), 웹 일기(blog)등에서 나타나는 일반 언어의 음운 또는 형태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독특한 문체나 어법, 특수기호 등을 포괄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통신언어’라 정의를 내리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인적 연구대상으로는 <표-1>의 인터넷 사용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컴퓨터 통신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신조어를 창조하는 신세대층으로 설정하였다.

<표-1>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sup>6)</sup>

	6~12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平成14年末	52.6	88.1	89.8	85.0	75.0	53.1	16.2
15年末	61.9	91.6	90.1	90.4	84.5	62.6	21.6

5)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의 이해』, 월인, p.19

6) 総務省 「通信利用動向調査」(2004)  
<http://www.johotsusintokei.soumu.go.jp/whitepaper/ja/h17/>



신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을 규정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한다.

요네가와 아끼히코(米川明彦)는 신세대란 중학생에서 20대까지의 남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OL로 대표되는 젊은 사회인을 가리킨다.<sup>7)</sup>

나가세 지로(永瀬治郎)는 신세대에 대해서, 신세대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친구와 무리를 이루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지니게 되는 시기, 즉 중학생부터 고교, 대학생 정도까지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 세대는 사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의무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기중심의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입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충분히 발휘하고 못하고 학교와 입시학원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의 개성과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sup>8)</sup>

위의 학자들이 신세대를 정의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인 연령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신세대'라고 하는 어의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연령적으로는 10대에서 20대 전반 정도 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통신이나 휴대전화 메일은 신세대들만의 도구가 아니다. 30대는 물론이고, 50대, 60대에서도 인터넷은 보편화되고 이용자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통신언어'라는 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신언어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며, 여기에서 문제 삼는 언어형식 및 그 용법이 신세대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

7) 米川明彦(1998) 『若者語を科學する』, 明治書院 p.4

8) 永瀬治郎 (1999) 「語の盛衰-キャンパス言葉の壽命」 日本語學 9月, p.14

### 1.3. 연구기대 및 효과

인터넷 안의 공간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컴퓨터의 활용으로 인터넷 사용이 범 대중화되고 인터넷으로 대화방, 게시판 참여뿐만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고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어느 정도의 관심만 있으면 일본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번역프로그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번역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번역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통신언어들과 약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번역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의미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문(1)은 번역프로그램을 통해 번역을 한 예이다.

(1)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カッ飛びで走っていた車が急に減速したのだから、何かあるって察しろよ。

交機のバトかもしれんし! DQNな香具師!!

(1)b 각 나는 일로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감속했으니까, 무엇인가 있다

라는 추찰야. 교기의 파토일지도 모르지 않아 해! DQN인 향구사!

예문 (1)a는 블로그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예문(1)a를 번역프로그램<sup>9)</sup>을 통해 번역한 것이 (1)b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밑줄 부분의 ‘DQN<sup>10)</sup>’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단어의 축약인지 연상이 되지 않는다. ‘香具師’ 역시 문맥상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의미가 어색해 진다.

9) <http://www.excite.co.jp/world/korean/>

10) 불량 청소년들의 불행했던 어린시절을 숨김없이 털어 놓는 방송 「目撃ドキュン」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다. 불량스럽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1(a)를 통신화자가 통신언어를 사용하여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면 1(c)와 같다.

(1)c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무슨 일이 있다고 추측이나 할 것이지. 교통 경찰차일지도 모르고! 나쁜 놈!’

이와 같이 번역프로그램으로도 번역이 불가능하고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통신언어가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상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어휘가 생겨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채롭다. 그만큼 언어의 변화가 빠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의 요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젊은이들이 어떠한 어휘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언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일본의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떠한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와 언어적 변화가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사용하는 목적 등을 통해 일본 젊은이들의 사고(思考)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Ⅱ. 통신언어란

### 2.1. 인터넷과 언어생활

인간은 자신들만이 가진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변화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사회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듯이 언어와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980년대 말, 호출기가 신세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변화시켰다. 단순히 ‘호출’ 도구였던 호출기가 숫자나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문자통신’의 도구가 되었다. 게다가 휴대전화·PHS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메일 교환이 시작되고 인터넷을 통한 영상정보의 이용 등 멀티미디어의 진보는 계속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온라인에서 영화보기, 음악 감상, 게임 등의 취미 생활을 하며, 동호회를 통해 관심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누구나 인터넷 통신으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 통신만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인터넷 통신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수요와 더불어 발생한 것이 통신 언어이다. 통신언어는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 및 특성에 의해 일상 언어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러 학술잡지를 토대로 통신언어의 발생배경을 알아보고 통신언어의 기능 및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2. 통신언어의 발생배경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휴대전화와 전자메일 및 통신에 관한 새로운 용어가 발생하고 독특한 언어적 변화 등이 생겨났다. 우선 이러한 언어적 특징이 발생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호출기의 등장

종래 젊은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딘가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어떻게든 ‘말’에 의한 회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호출기(ポケベル<sup>11)</sup>)라는 무선호출의 등장은 젊은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변화시켰다. 처음 등장했을 때 호출기는 외근 중인 회사원이 회사로부터의 호출음을 듣고 가까운 곳의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후 1987년에 숫자표시 기능을 갖춘 호출기가 판매되자 호출기의 역할은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일방적인 호출이었던 것이 복수의 불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번호표시가 복수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회사원이 주 사용자였던 호출기가 이때부터 여고생을 중심으로 신세대들의 개인 미디어로서 서로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신세대들 사이에서 숫자를 사용한 암호해독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붐을 이루었다. 숫자 밖에 표시할 수 없던 호출기는 송신을 하더라도 금방 답장을 받을 수 없는 일방통행의 제한이 많은 미디어였다. 하지만 당시의 신세대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도구로 바꾸었다.

숫자의 말놀이로서 암호를 만들고, 메시지를 상대의 호출기로 송신하는 방법이다. 일본어에서 숫자를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다. 예를 들면 ‘4’

---

11) 「ポケベル」는 본래 日本電電公社(지금의 NTT)의 paging service의 상품명 「ポケットベル」의 애칭이다. ポケットベル가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타사제품도 포함해서 「ポケベル」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三宅和子(2001) 「ポケベルからケータイ・メールへ」 『日本語学』 9月号, p7)

는 「ヨ, ヨン, シ, ジ, フォー, ホ」 등으로 읽을 수가 있다.ポケベル 암호 숫자에는 하나에서 10개 전후의 읽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는 겨우 10종류이지만 꽤 많은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 0840(オハヨー)

4649(ヨロシク)

3341(サミシイ)

14106(アイシテル)

이러한 암호표현은 자주 사용되어 금방 추측이 가능하지만, 더욱 어려운 암호들을 친한 친구들 끼리 서로 보내고, 그것을 해독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림으로써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동료의식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방통행의 미디어인 호출기를 이용한 짧은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즐거움에 젊은이들은 매료되어 갔다.

## 2.2.2 문자미디어로서의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1979년 자동차전화로부터 사용이 개시되었다. 그 후 NTT가 민영화한 1985년에 휴대할 수 있는 ショルダーホン을 발매하고, 그 후 급속하게 소형화가 진행되고 가격도 내려갔다.

이 시기를 경계로 휴대전화의 계약가입자 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호출기는 계약자수가 하강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후 2001년 1월 NTT가 호출기를 폐지하여 호출기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sup>12)</sup>

그리고 휴대폰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용자도 경제력 있고 긴급 정

---

12) 三宅和子(2001), pp12~13

보를 필요로 하는 기성세대에서 신세대층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처음 휴대전화는 ‘휴대할 수 있는 전화’로 음성전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1999년 2월 NTT도코모그룹의 iモード발매로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전용 웹 사이트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휴대전화로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스타일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휴대전화의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 이외에 휴대전화 메일의 송신수단으로서 사용되고 iモード에 의해 정보검색이 손쉬운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PC에서 인터넷 이용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자메일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한 전자메일의 보급에 의해 신세대들의 ‘음성문화’는 ‘문자 문화’로 이동해가게 되었다. <표-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자메일의 이용률이 미국과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표-2> 전자메일 이용률(%)<sup>13)</sup>

	일본	미국	한국
pc	94.2	96.1	84.8
휴대전화	87.7	12.4	43.1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메일의 교환은 특히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휴대전화의 비싼 통화요금에 비해 메일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외에도 언제 어디서라도, 동시에 여러 명의 친구들과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서로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가

13) 総務省 「通信利用動向調査」(2005)

<http://www.johotsusintokei.soumu.go.jp/whitepaper/ja/h17/index.html>

볍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호출기로 성장한 신세대들의 문자문화는 휴대전화로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실제로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메일 교환에 다용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2.2.3 인터넷의 보급

쇼와 말부터 헤세이초기에 걸쳐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와 PC에서 워드프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장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sup>14)</sup> 그러나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는 겨우 연하장이나 안내장을 찍어내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후 10년 정도 경과한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과 정보발신의 개인이용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상황은 변했다.

1993년 미국에서는 당시 클린턴 정권 하에 「정보 슈퍼하이웨이 구상」이 발표되었다. 2년 후 일본에서도 「인터넷 元年」을 맞이하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은 보급되어 갔다<sup>15)</sup>.

<표-3> 인터넷 이용인구와 인구보급률<sup>16)</sup>

	(万人,%)							
(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터넷이용인구	1,155	1,694	2,706	4,708	5,593	6,942	7,730	7,948
인구보급률 <sup>17)</sup>	9.2	13.4	21.4	37.1	44.0	54.5	60.6	62.3

14) 佐竹秀雄(1995) 「新たな文体を檢索する」 『月刊言語』 1月, pp52~53참조

15) 富田英典(2002) 「携帯電話と若者の言語生活」 『日本語學』 11月, p.24참조

16) 総務省 「通信利用動向調査」 (2005)

<http://www.johotsusintokei.soumu.go.jp/whitepaper/ja/h17/index.html>



總務省의 「通信利用動向調査」에 따르면, 2004년 인터넷 이용인구는 7948만명(전년대비 2.8%증가), 인구 보급률은 62.3%로 2003년(60.6%)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은 e-Japan 전략<sup>18)</sup>이 시작되는 전년도(2000)의 이용인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200만 명 증가, 인구보급률은 25.2%증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띈다.

또한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로 알려진 P2P<sup>19)</sup>(Point to Point)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P2P기술로서 메신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즉 친구와 채팅은 물론 바로 메일을 송신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집에서 전화를 하듯이 상대방과의 회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메신저 기능이 휴대전화에도 모바일 메신저로서 등장하였다. 이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에서 개인pc로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상대방과 바로 메신저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드백이 가능한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빠르게 정착되고 보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통신언어라는 것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 2.3. 통신언어의 기능과 특징

### 2.3.1 통신언어의 기능

이 장에서는 통신언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

17) 전체 인구에 대한 인터넷 이용 인구의 비율

18) 2001년 3월 모리(森)前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IT전략본부 제1차회의에서 『5년 이내 세계최첨단 IT(정보통신) 국가 형성』을 목표로하는 IT기술전략을 발표하였다. e-japan 전략은 5년 이내에 세계최첨단 IT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19) 중앙의 서버를 통하지 않고 PC와 PC가 서로 대등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는지, 통신언어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서 ‘경제성’, ‘오락성’, ‘연대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위한 어휘 수집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약 5개월 간 신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대익명 채팅사이트 「2ちゃんねる<sup>20)</sup>」와 자신의 일기를 공개하는 블로그<sup>21)</sup> 「HATENA DIARY<sup>22)</sup>」,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 형식의 게시판 「キャスビ<sup>23)</sup>」,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2ちゃんねる」에서 탄생한 中野独人の 「電車男<sup>24)</sup>」을 인용하였다.<sup>25)</sup>

### 2.3.1.1 경제성

통신상에서 경제성에 의한 언어사용방식은 키보드를 통한 글자 입력을 빠르게 한다. 이것은 대화의 속도를 향상시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키보드를 통해 이야기하듯 입력하려면 생각이 앞서고 입력이 뒤쫓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통신언어의 사용이 글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직접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와 비교하여 대화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번잡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 화자들은 문장을 줄여 자신의 생

---

20) www.2ch.net

21) ‘web blog’를 단축한 말로, web페이지 상에서 적는 일기를 말한다. 주로 뉴스나 주변의 화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 등을 게재한다.

22) hatena diary는 HATENA가 제공하는 웹일기(blog서비스)이다. 브라우저에서 문장을 넣기도 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하여 자신만의 블로그를 꾸밀 수 있다. 휴대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올리기도 하며, 휴대전화를 통해 블로그를 보기도 하며, 직접 글을 남기기도 한다.(http://d.hatena.ne.jp/)

23) www.casphy.com

24) 中野独人 (2004), 『電車男』株式会社新潮社

25) 앞으로 제시되는 예문의 자료는 위 사이트에서 추출한 것이며 실제 대화 내용을 예문으로 삼았다. 대화의 일부분을 필요에 따라 추출했기에 앞뒤의 대화 내용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실례의 일부분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호 또는 그림문자를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통신 화자들은 경제성에 의해 말을 줄임으로써 대화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고 동시에 글자 입력의 노력을 줄여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각각의 예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보면

(3) もいもし、夜分置くすいm…(すいません)

(4) 星羅s(さん)こんにちわ (\*'▽')ノ

(5) まずは関係維持おめ(おめでとう)で、ちょい長いけど一緒に通勤の話を…

(6) 掃宅してからものすごい脱力感。前にリタリン飲んで薬が抜けたときの感じです。

きっとカフェイン のせいだろうとry(以下略)

예(3),(4),(5)의 ‘すいm…’, ‘星羅s’의 ‘s’, ‘おめ’는 각각 ‘すいません’, ‘さん’, ‘おめでとう’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통신화자의 키보드를 누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すいません’의 경우 키보드를 9번 눌러야하는 것에 비해 7번으로 횟수를 2번 줄이는 효과가 있고 (5)의 경우 3번, (4)의 경우는 5번이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

(5)의 말줄임표‘…’와 (6)의 ‘(ry)’는 문장 줄이기의 예이다. (5)에서는 ‘조금 길지만 출근의 이야기를’ 다음에 ‘하고 싶다’ 정도의 서술어를 줄였다. (6)의 (ry는 「以下省略」을 줄인 「(略)」를 다시 줄인 표현이다. 문맥으로 ‘분명 카페인 탓이라고’ 다음에 ‘생각 한다’의 서술어를 줄이고 상대방이 짐작 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를 지닌 언어사용으로 보인다.

### 2.3.1.2 오락성

이것은 통신언어를 사용하여 대화에 웃음을 유발시키고 즐기는 기능이

다. 일본어의 경우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시킬 때 대부분 로마자나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변환키를 사용하여 한자로 변환한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통신화자들은 뜻과는 상관없이 음이 같은 한자로 교체한다거나 글자의 모습이나 배열을 바꾸기도 한다. 오락성은 이와 같이 말을 암호와 같이 만들고 그것을 해독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데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7)a 名前：電車男 投稿日：04/03/18 00:32

ダメだ…みんなのレス<sup>26)</sup>が頭に入ってこない…\_ | 10

今日は休みます…

b 名前：Mr.名無しさん<sup>27)</sup> 投稿日：04/03/18 00:33

電車は回りの意見に流されるな！

みんな藻前さんを応援してるんだから、

自分の意見を優先してレスをま考しろ！ とりあえず今日は乙

c 名前：Mr.名無しさん 投稿日：04/03/18 00:34

ゆっくり休め。おまいはがんばったよ (ノ∀´)

위의 예는 『電車男』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대화방의 경우 대화에 참가할 때 실명이나 메일주소를 다른 멤버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화에 참가한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통신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예문(7)의 ID가 ‘電車男’인 통신화자는 맥이 풀려 무릎을 꿇고 있는 ‘\_ | 10’의 그림문자를 사용하여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b의 ‘名無しさん’의 ‘みんな藻前さんを応援してるんだから’에서 ‘藻前(もまえ)’는 おまえ

26) レスポンス(response)를 줄인 말로 대화방 또는 게시글에 대한 대답·응답하는 글을 의미한다.

27) 이름을 적는 칸을 공란으로 두면 자동으로 ‘名無しさん’이라고 나오게 된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한다)

[omae] 의 첫음절에 /m/이라는 음소를 첨가하고, 그것을 의미와는 무관한 한자 ‘藻’로 바꾼 것이다. 통신언어의 경제성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음소를 첨가하여 한자로 바꾸는 수고를 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とりあえず今日は乙’에서 ‘乙(おつ)’역시 おつかれさまでした를 ‘おつ’로 줄이고 다시 의미와는 무관한 한자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암호 같은 표현들을 통신화자들이 재미있게 만들어 사용하고, 상대방 또한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3.1.3 연대성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살펴보면 나이, 직업, 성별, 여러 가지 취미나 기호로 나뉘어져 있다. 나이 또는 관심도가 비슷한 부류끼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화자들은 같은 언어와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연대성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8) ~アゲインジャーみるく姫~ [2005/12/25(日) 11:33:59]

うちもタメでd (。>ω。 ) w w w w w

そんでメリクリい w w w 、 (>▽<\*)

花☆ [2005/12/25(日) 11:34:49]

~~アゲインジャー~~!!!!って気分じゃねえ('A`)あ

王子 (メヅア 秦太 [2005/12/25(日) 11:51:01]

~~アゲインジャー~~なのよーん

~アゲインジャーみるく姫~ [2005/12/25(日) 11:53:21]

なのよ~ん (\*o`v` ) o

ところで奏太って何年~???

和王子 (メヴ°秦太 [2005/12/25(日) 11:54:28]

③年なのよーんなのに、午前中だけ~~クリスマス~~があるという男

위의 예문(8)은 캐스피의 중학생 게시판의 일부이다. 통신화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모두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만 ‘メクリスマス’가 아닌 ‘メクリ’라는 축약된 형태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듯 통신화자는 유사한 인사말 형식과 통신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방 참여자들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규범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규범과 질서에 맞지 않는 언어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3.2 통신언어의 특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신언어는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즉 통신언어는 전자메일 등의 인터넷을 이용할 때,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고 가나와 한자가 섞인 문장을 쓰기 때문에 보통 편지나 연락문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면 커뮤니케이션(FTF:Face To Face)에서 가능한 음조나 얼굴 표정 등에 따른 정보전달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메일인 경우 편지와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금방 답장이 오기도 하고 또 채팅인 경우 쌍방향으로 직접 교환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두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대화를 하듯이 키보드를 누르며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을 다듬어 문장을 만들기 보다는 순간적인 순발력을 통하여 생각나는 대로 쓰게 된다. 이 의미에서는 편지보다 전화의 기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신언어는 문자표현으로서 교환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문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와 실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언어는 문어적인 미디어 특성이 지닌 제약을 넘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다운 분위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9) - 대화방 예시문

~アゲレジテみるく姫~ [2005/12/25(日) 11:27:38]

星羅 s こんちわ (\*'▽` ) ノ

1 番おめでと w w w w 賞品わ乳製品になりますが よろしいでしょうか ??? 笑

~アゲレジテみるく姫~ [2005/12/25(日) 11:53:21]

なのよ~ん (\*'▽` ) □ ところで奏太って何年~ ???

知和王子 (メ'▽'秦太 [2005/12/25(日) 11:54:28]

③年なのよ~んなのに、午前中だけ列スガがあるというワ<sup>28)</sup>

~アゲレジテみるく姫~ [2005/12/25(日) 11:54:53]

午後わ受験勉強か ??? ! ! ! ! !

知和王子 (メ'▽'秦太 [2005/12/25(日) 11:56:07]

在ス本当は列スガだけは遊びたいんだけどね 皆、勉強してるんで

~アゲレジテみるく姫~ [2005/12/25(日) 11:57:24]

えらいねえ~ (泣 ; m ; ) うちも塾あるのよ~㊦㊧

(10) - 웹 일기 예시문

AM 4 : 0 0 のひとりごと

My ブログググ~♪”ということで、今日から氣が向いたらちょこちょこ書き込んでいこうと！てか<sup>29)</sup>、最近周りの友だちが続々やり始めたからって、流行りにのってしまった

28) 笑(わらう)를 축약하여 가타가나로 나타낸 것으로 자신의 웃고 있는 표정을 나타낸다.

29) てか/てっか/つか/…ってゆうか/つうかあ/つうかさあ 등의 형태로 신세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어로 말을 시작하거나 다른 화제로 교환하기 위해 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

自分どーよ・・・なら書くなってな！the矛盾～♪

あー腹くっちー (ー;) やっぱりスパゲティを1人分だけ茹でるの難しいわ。うちが茹  
でると絶対になかなかポーン!!な量になってしまうのよね・・・しかも作った分はちゃんとその  
時に食さないと気がすまないから、こうぶくぶくとぶくぶくとね・・・チーン (´ㅁ`;) the  
無計画～♪

예문 (9)는 대화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예문 (10)은 웹 일기의 한 예이다. 여기에서는 이야기 할 때의 어조를 살린 듯한 표현이 자주 보인다. 특히 예문(9)는 언어표현에서는 보통의 문어체와는 다르며 표기도 일반적인 표기 습관이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遊びたいんだけどね」의 'ね', 「えらいねえ～」의 'ねえ'등의 종조사의 다용, 「皆、勉強してるんで」, 「うちも塾あるのよ～」에서 조사의 생략이나 문장이 완결되지 못하고 말을 끝내는 것 등 구어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이 문어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맞이하는 모습의 「(\*'▽`)ノ」,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泣;m;)」 「㉞㉞」 등의 그림문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 「は」 대신 「わ」가, 句点「。」 대신 「?, !, ~」와 같은 각종 기호들과 「笑」「ワラ」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그림문자가 나타나 있다. 이것들은 모두 특수한 표기법이며 보통의 문어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표준적인 표기나 기호의 다용은 표현의 뉘앙스나 이야기할 때의 어조를 가능한 한 정확히 반영하려고 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10)은 예문(9)에 비해 문어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기는 보통 가장 개인 적인 것의 하나로 자신이 경험한 일 또는 생각하는 것 등을 하루하루 써내려간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신만이 읽는다.

다.



이에 반해 예문(10)과 같은 웹 일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지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구체적 독자 인 경우가 많아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듯이 풀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구어적인 표현이 보인다. 「難しいわ」의 「わ」 「量になってしまうのよね」의 「よね」 등 종조사의 사용이 보이고, 「しかも作った分はちゃんとその時に食さないと気がすまないから、こうぶくぶくとぶくぶくとね…」에서 보듯이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채 말을 끝내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사의 생략, 「てか」, 「どーよ」와 같은 신세대들의 유행어도 보인다.

표기에 있어서도 「My ブログググ〜♪」와 같이 외래어의 혼용과 기호의 사용, 땀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와 같은 표정문자 등 비표준적인 표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통신언어는 일반적인 문어체와는 다르다. 문자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넘어 실제 대화하는 듯한 것을 연출하기 위한 표현수법도 그렇고 표기형태도 표준적인 표기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많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말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구어를 문장으로 옮겨놓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터넷상에서 자주 관찰되는 통신언어의 표현·표기 형태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통신언어의 언어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①종조사가 다용되고 있다. 종조사의 다용은 구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음성적 특징을 보완하고 쌍방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한 구어적인 효과

를 창출해 내고 있다.

- (11) うんそうだねえいま昼ゴハン食べてる
- (12) 落ちてないよお★ 今、1年生なのお~??
- (13) 電車はまだ帰ってこね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

②조사(특히 격조사)의 생략이 나타난다. 이는 정확한 문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휘 중심 다시 말하면 의미전달 중심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14) その子に頼み込んで、1個(を)もらって食べた。
- (15) 上手くまとめて感想(が)かきたいんだがなあ…

③축약형, 변형이 많이 사용된다. 경제성과 오락성 기능이 많아 신세대 들을 통신언어 세계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6) ホンと(ほんとう),命が掛っている場合が多いんですから!!
- (17) きっとカフェインのせいだろうと(ry(以下省略))
- (18) やべっ(やばい)(— —;)ておもってそ—っとして受付さ行ったよ

④유행어나 속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통신언어의 사용은 흥미유발과 은 어적 속성이 발휘되어 사용자 끼리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한 몫을 담당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9) 「えっ!?てかもアウトじゃん!」と思った。
- (20) まじ?俺も九州 (^-^)/ 何歳?? 俺は高3。
- (21) 超祈ってるよ私

⑤서술어 또는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나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 다.

- (22) あと、声小さいんで会話するのちょっと大変…\_ | ^ | 0
- (23) チョコ大好きなんすよ。で、思い出した事が。

(24) クレカの普通の使い方したのも初めて

위에서 살펴본 통신언어의 표현은 상대방과 마주하여 이야기 할 때와 같이 감정을 문어에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통신에서는 프로미넌스, 인터네이션, 띄어읽기, 강조나 시각정보인 얼굴표정, 몸 동작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언어는 문자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형태를 살펴보면 구두점을 생략한다거나, 구두점의 위치에 그림문자 또는 표정문자가 사용되는 등 종래의 문어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눈에 띈다.

⑥가타가나의 사용이 표준적인 표기형식과는 다르다. 감정이나 평가를 강조하는 경우, 강조를 위해 표준적 표기가 아닌 가타가나를 사용한 표기를 하고 있다.

(25) ウチワ最高(☆\_☆)

(26) ホントは、あの☆ステキ☆な写真にしたかったけど我慢しました(;;)

(27) なんか毛先ぐじぐじしてるイケメン<sup>30</sup>風のやつがたまにいるー

(28) 这里最近、オサレ(おしゃれ)して外出するのが楽しい俺がいますよ…

(29) エルメスはフツーに海外旅行に行ってフツーに楽しんで帰ってきただけだろ。

⑦로마자, 외국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30) Myプロググ~♪

(31) ~アゲル~みるく姫~ [2005/2/28(水) 13:41:19]

漢音>>いいのw w w w w<sup>31)</sup>

30) 멋있고, 잘생긴 남자라는 의미의 신세대어. 어원적으로는 イケてる 「メン(MEN=男たち)」라고도 하고, イケてる 「面(=顔)」라고도 한다.

こよひ>>each otherです w w w w w何

⑧ 독특한 표기법을 사용한다. 장음기호 ‘-’ 대신 ‘~’를 즐겨 쓰며 단어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말 다음에 ‘②’라고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32) でも普通のサイズでB系?みたいなタボ②した服装してましたよ!

(33) そうだったんですか~

⑨ 구두점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각종 기호들 또는 그림문자, 표정문자가 포즈, 억양 등을 명시하기 위한 대체부호로서 사용되고 있다. 포즈, 억양, 프로미넌스 등의 언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몸·손동작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34) 言えなかったんだよ…相手の前にしたら言えなくなったのき…\_|`|0

(35) カラ短めで全然へんじゃないとおもぅ^^

(36) B系<sup>32)</sup>は苦手なんすよ↓

(37) ゆうとはクリスマスの予定あんの↑?

이와 같이 비표준적 표기나 기호의 사용은 표현의 뉘앙스 또는 이야기 할 때의 어조를 가능한 나타내고 싶어 하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종래 문어체의 습관성을 탈피하여 자각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통신에서의 대화를 보다 더 대면커뮤니케이션답게, 그리고 대화하듯이 보이려는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1) ‘笑う(warau)’를 축약한 것이며 이와 비슷한 것으로 ‘笑’)가 있다.

32) 흑인 문화를 나타내는 Black, 큰 사이즈를 의미하는 Big의 頭文字로서 힙합계의 문화, 패션 전반을 가리킨다.

### Ⅲ. 통신언어의 사용실태와 분석

1990년대 초, 전화와 모뎀(modem)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의 전송속도는 지금에 비해 매우 느렸다. 그래서 통신 접속에 들어가는 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 또는 문장의 축약을 많이 사용하였다.

지금은 컴퓨터 통신에서 인터넷 전용선에 의한 통신이 가능해 지면서 비용 면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대화를 나누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어와 문장의 축약은 끊임없이 통신언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는 현상이 신세대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그것이 어법의 파괴로도 이어져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이 통신상에서 마구잡이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언어학적 특성을 ‘음운·표기’, ‘형태·통사’, ‘어휘’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3.1 음운·표기론적 실태와 분석

##### 3.1.1. 음운 교체

음운 교체란 한음이 다른 음으로 변할 때, 조음위치가 비슷하거나 음감이 비슷한 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sup>33)</sup> 이러한 음운 교체현상은 어간에서 보다 어미에서 더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인터넷 통신에서의 음운 교체현상은 단지 기존의 발음이나 형태를 교체함으로서 낯설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통신화자가 본래 낱말의 소리를 자의적이고 일

33) 이한섭 (1997) 『일어학개설』, 한신문화사, pp21~23

시적으로 다른 소리로 바꿈으로서 표현의 재미와 신선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8) 携鞆にかけましたが、留守電でした(でした)… 明日出直します…
- (39) 今、仕事から帰ってきますた(ました)… |\_| |
- (40) コンタクトホスイ(ほしい)
- (41) おまい(おまえ)、いままでコンタクト使ってたことあんの？
- (42) コンビにて買い物終わって帰ろうとしたらおねいさん(おねえさん)が店員に道を聞いていた。

예문 (38),(39),(40)은 [desita] [kimasita] [hosii] 의 술어부분의 모음 /i/에서 /u/로 교체가 일어났다. 예문 (41),(42)의 경우 [omae] [one:saŋ] 의 모음 /e/에서 /i/로 교체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43) セックルもチッスもしてねえよ!

(43)은 섹스 [sekkusu] , 키스 [kissu] 의 자음을 교체한 예이나 자음 교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단지 낮은 발음으로 교체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1.2 음운 첨가

음운 첨가란 단어 내부에 있어서 어느 부분엔가 음이 첨가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ン」 「ツ」 「j」의 첨가가 많고,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이 첨가되는 수가 많다.<sup>34)</sup>

그러나 통신언어에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음운 첨가 현상이 보인

34) 이한섭 (1997), p23

다. 예를 들면,

(44) そうだったんディスカ(ですか)…おれは全然分からなかったよ…\_|´|

(45)a ダメだなんか顔熱くなってきた。もちつけ(おちつけ)俺

b もまいら(おまえら)おはよ 'A')

c お帰り&もつかれ(おつかれ)

(46)a よっし!!続き頑張りまーす ( ` 3´)

b ふたの追突画像、なかなかかわいいわあ~ ( ` ∇ ` )

(44)에서는 통신화자가 「そうだったんですか」의 부분을 일부러 작은 「イ」를 첨가하고 가타가나로 변환시키는 등의 수고가 보인다. (45)의 예문은 /o/로 시작되는 첫음절에 음운 /m/을 첨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ちゃんねる의 용어 해설 부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sup>35)</sup> 예문(46)은 장음을 첨가함으로써 길게 발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유도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음운 첨가는 통신언어의 경제성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음소를 첨가하거나 또는 다시 한자로 바꾸는 수고를 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음운첨가는 경제성에는 반하지만 우스꽝스런 느낌 혹은 방언적인 음감을 살려 상대방에서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상 언어에 대한 진부함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3.1.3 음운 탈락

음운 탈락이란 단어 내부에 어떤 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음소실(音消

35) ・漏れ : 「オレ」つまり自分の事を指す。誰かが「オレもオレも!」というレスを「オレ漏れも!」と表記したのが発端とされている。 사이트 참조 <http://webmania.jp/~niwatori/>

失)이라고도 한다.<sup>36)</sup> 이러한 음운 탈락은 통신언어 상에서는 경제성과 오락성을 띤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어체 표현과 키보드의 타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47) こないだ(このあいだ)とは違って若めな雰囲気な格好でした

(48) 55のような台紙<sup>37)</sup>は出てこんだろ(出てこないだろう)

(49) あんま(あんまり)ブランド叩きにこだわるとファ板みたいになるぞ

(50) やっぱ(やっぱり)ピザとかスパゲッティが多かったです

(47)과 (48)은 두 단어의 연속환경에서 음절이 줄어들면서 낱말의 융합이 일어난 예이다. (48)의 「こないだ」는 [konoaida] 에서 [konaida] 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보이며, (49)는 [detekonaidaro:] 에서 [detekonadaru] 로 ‘こない’와 ‘だろ’가 융합하면서 음절이 탈락되고 있다. 위 예문들은 일상회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통신언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처럼 신속한 대화양상을 실현하기 위한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일상회화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통신언어에서 볼 수 있는 음운 탈락 현상을 들 수 있다.

(51) ども(どうも)です

(52) 彼女は色々オサレ(おしゃれ)なお店を探して巡るのが趣味らしい。

예문 (51)은 「ども」의 모음 /u/가 탈락하여 3음절에서 2음절로 줄어

36) 이한섭 (1997), p23

37) ‘台詞(だいし)’를 의미와 상관없는 한자 ‘台紙’로 변환한 것이다.



들었으며, 예문 (52)는 「おしゃれ [osijare]」의 반모음/j/가 탈락한 것이다. 이는 낮설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신세대들 간의 은어처럼 사용되는 어휘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1.4 오타의 확산

최근 통신언어의 경향으로 언어규범에 어긋난 통신언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타의 확산이다. 이러한 오타의 확산은 빈번한 오타 사용에 기인한다. 비록 오타가 언어규범에 어긋난 통신언어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점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통신언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萌え」이다. 「萌え」는 「もえる」의 한자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래 「燃える」를 표기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타인 「萌え」가 통신화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어 사용되고,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도 점차 변하여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의 소녀 캐릭터 등에 좋아하는 감정을 품는 모양을 의미하던 것이 현재는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모양 또는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38)</sup>

(53) 彼女はキアヌ萌えだそうです。俺はミス萌え。

(54) 「こんにちはー」中から彼女が靴をトントンしながら出てきた。

今日も萌える…(´\_`)

38) 横井秀明 (2006), 『現代用語の基礎知識』, 自由国民社 p.1204, p.1242

예문(53)은 ‘그녀는 키에누 리브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는 스미스가 좋아’라는 의미로 영화배우에 대한 관심 또는 호감을 ‘萌え’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예문(54)의 ‘今日も萌える’는 그녀가 안에서 구두를 신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반해버린 자신의 감정을 萌える로 표현하고 있다.

이 외의 오타의 확산에는 금지키워드(NGワード)<sup>39</sup>를 대체하기 위한 단어의 사용과 형태상 비슷한 가타가나의 교체를 들 수 있다.

(55) 氏ね(死ね)!! おまいは二度 氏ね(死ね)!!

(56) SOILWORK 的ヴォーカルスタイルの正統派スウェディッシュメロデスサウンドじゃな  
いか!! どう聴いてもツボに入りました。本当にありg(r y)<sup>40</sup> 2曲目のサビに 萌え  
氏んだ(萌え死んだ)w w

예문(55)의 「氏ね」는 死가 몇몇 게시판에서 금지키워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氏로 대체하여 은어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예문(56)은 燃える의 오타 萌える와 死ね의 대체로 사용된 氏ぬ가 결합된 것으로 「萌え死んだ」 즉 ‘아주 감격했다’ 정도의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

(57) 598:55のような台紙は出てこんだろ

600:台紙って?

601:》 600 台紙=だいし=台詞

(58) 購買部の中のコピー機は人大杉! 紫苑館2階に移動しても人大杉!

39) 상식적으로 대다수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금지 키워드로 지정되어 있어 금지된 키워드로 검색이 불가능 하며 금지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다.

40) ‘ありがとう’의 의미이다. ‘ry’는 ‘이하생략’이라는 의미로 즉, ありg이라는 생략해도 상대방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예문(57)은 2ちゃんねる 게시판에서의 대화이다. 이는 ‘台紙=だいし=台詞’와 같이 히라가나를 한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대화에 재미를 두기 위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자로 교체한 것이다. 예문 (58)의 경우도 ‘おおすぎ’의 변환과정에서 ‘多すぎ’가 아닌 ‘大杉’로 일부러 선택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가타가나를 형태상 비슷한 가나로 바꾸어 쓰거나, 혹은 전혀 연상할 수 없는 한자로 변환시키고 있다.

(59) シチューを飯にかけて食う香具師の糞

(60) 「resto」氏ではなく「rseto」氏だった。マジスマソ。ほんと自分ダメだ。

예문(59)은 2ちゃんねる의 관심분야 ‘食べ物’에 관한 게시판의 주제이다. 이 문장에서의 ‘香具師(ヤシ)’란 ‘奴’를 의미한다. ‘奴’를 가타가나로 표기하면 ‘ヤツ’가 되는데 통신화자들이 의도적으로 가타가나 ‘ツ’와 비슷한 ‘シ’로 교체한 후 한자로 변환하여 ‘香具師’가 된 것이다. 예문 (60)은 ‘スマソ’의 ‘ソ’와 비슷한 형태인 ‘ツ’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오타의 사용은 통신언어에 익숙한 화자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유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통신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암호와도 같아 쉽게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 3.1.5 기호를 이용한 표현

통신언어에서 (^)나 m( )m과 같이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문자 기호로 나타내거나 (笑),(泣)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문자(絵文字)는 통신상에서 결여되는 비언어신호<sup>41)</sup> 특히 표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발달하였다. 즉 어떤 말의 사용이 농담이었는지 나타내기도 하고, 말로는 부족한 사과의 기분·기쁨·놀람·슬픔 등의 감정을 표정의 매체로서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sup>42)</sup> 그림문자는 키보드를 통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기분이 좋음’을 나타내는 ‘(^\_^)’, ‘(^0^)', ‘(\*^\_^\*)’, ‘당황스러움’을 나타내는 ‘(^\_^;)’, ‘^^’, ‘(-\_-);’, ‘울고 있음’을 나타내는 ‘(;\_);’, ‘(T\_T)’등이 있다. 최근에는 희, 노, 애, 락의 의미를 넘은 더욱 다양한 모양의 그림문자가 등장하고 있다.

(61) どもです。ようやくさつき帰ってました。色んな所行って疲れた… \_ | ^ | ○  
 土産手に入れて、奮力所下見行って、ちょっと秋葉よって…その間も彼女とメール  
 してたんですが「次のデートの下見にきてます」と書いたら「(^3^)」  
 こんな顔文字が…( ´ - ` ) 準備は講端、あとは決戦の日を待つばかりです



예문(61)의 그림문자 \_ | ^ | ○은 통신화자가 자신의 피곤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문자를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화자의 「次のデートの下見にきてます」라는 메시지를 본 상대방은 고마운 자신의 감정을 담은 표정문자 (^3^)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흐뭇한 기분을 ‘氣持いい’라는 말 대신 ( ´ - ` )로 대체하고 있다.

(62) 起きたら響鬼終わったOTL。ラストで見逃すとは——！！

41) 「いいえ」에 상응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御願います」에 상응하는 「両手を合わせる」(일본인의 경우)등의 몸짓이나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웃는 얼굴, 슬픔의 우는 얼굴, 눈살을 찌푸리는 화난얼굴 표정 등 몸짓이나 표정 그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비언어신호이다.

42) 예를 들면 「ごめんなさい」라는 말에, 옆드려 절하고 있는 모양의 「m(\_ \_ )m」과 같은 그림문자를 더하면 미안함 이상의 마음을 담은 사죄를 의미한다.

예문(62)의 OTL은 위 예문(61)의 그림문자 \_ | ~ | ○을 좀 더 간단히 나타내고자 로마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61)의 예문과 같이 피곤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62)와 같이 허무함 또는 좌절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림문자는 통신화자가 느낀 것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감정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감정, 감각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세대들은 그림문자의 사용을 즐긴다.<sup>43)</sup> 인터넷상에서는 생각을 바로 이야기 하듯이 글로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결여되기 쉽고,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나기 쉽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라면 표형이나 문맥, 상황에 따라 통하는 표현도 인터넷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그림문자는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함을 보충하고, 감정, 감각의 원활한 전달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3.2. 형태 · 통사론적 실태와 분석

형태 · 통사론적인 면에서도 통신언어는 다양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논문에서는 ‘통신상에서 나타나는 신어(新語)’, ‘문장 줄이기’, ‘어순 바꾸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3.2.1 통신상의 신어

인터넷 통신상에서 만들어지는 신어(新語)는 오락성과 연대성이 강하다. 특히 신세대들은 오래된 말, 모두가 알고 있는 말 대신 새롭게 만들어진

43) 文化中の「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의 ‘전자메일에서 표현’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문자, 기호 등을 다용한 표현’을 16~19세 31.2%, 20~29세 15.8%, 30~39세 5.3%, 40~49세 4.1%, 50~59세 3.1%, 60세 이상 2.3%가 사용하고 있었다.

[http://www.bunka.go.jp/1kokugo/15\\_yoron.html](http://www.bunka.go.jp/1kokugo/15_yoron.html)

말과 표현을 추구한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또 새로운 말을 사용하는 또래 사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도 한다.

### 3.2.1.1. 단어의 축약

단어를 축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긴 단어를 매번 반복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짧게 축약하여 발음한다.<sup>44)</sup> 즉 단어의 축약은 일상 언어에서 좀 더 간편하게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大(東京大学), アニメ(アニメーション), NHK(Nippon Hoso Kyokai)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단어의 축약은 키보드 입력수를 줄이기 위한 경제성과 재미를 더하기 위한 오락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통신언어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 (63) っつか、チャットって意外にムズイ(むずかしい)!!
- (64) アニオタとかきもい(きもちわるい)事は明らかで、向うはお嬢サンわけ。
- (65) ぶっちゃけサイト同士の付き合いってめんどくない(めんどくさくない)?なんか嫌な奴がいてもアクセス数稼ぐ為には付き合い合えないといけない場合がある訳だし、現実世界でも同じだとは思うんだけど

위의 예는 형용사의 어두를 남기고 「い」와 결합한 형태이다. ムズイ는 「むずかしい」, きも이는 「きもちわるい」, めんど이는 「めんどくさい」를 축약한 말이다. 형용사의 축약에는 이외 예도 きしょい(気色悪い), けばい(けばけばしい), エロい(エロチック+い) 등이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이 축약된 형용사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44) 窪菌晴夫 (2002), 『新語はこうして作られる』, 岩波書店, p83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語)가 대부분이며 사람의 결점을 들추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sup>45)</sup> 예를 들면 「きもい」는 「きもちいい」를 축약한 것이 아닌 「きもちわるい」의 축약형이다. 그리고 「きもちいい」의 축약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어의 축약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나타난다. 이는 「きもちわるい」가 「きもちいい」보다 신세대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언어에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어 축약 현상이 보인다. 예를 들면,

(66) 昨日の夜に更新しようとしてまたデータ消しちゃった・・・orz いつもは一度  
テキストファイルに書いてからこちにコピペするんですが、直接文章をこちに書い  
ているときに限って間違った操作しちゃうんだよなあ・・・(・ω・) コピペ

(67) 中學からずっとポロシャツにチノパンツ。學校に行くにも大容量のデイバッグ。幸  
か不幸か視力は良かったので眼鏡はかけていなかったし散髪は1.5ヶ月に一回は  
行っていたけど思いっきりキバカジじゃん！はずかしー！

(68)A:空耳を見て思い出したけど、二週間くらい前の演習で発表を聞いている時  
に、土研モデルというのが出てきて、何度聞いてもDQNモデルにしか聞こえな  
かったので、笑いそうになった。

B:DQNなのはおまいさんじゃないか？w

(66)의 「코피페」는 「코피-&페스트(copy and paste)」의 축약으로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복사하여 다른 곳으로 붙여 넣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문 (67)의 「키바カジ」는 「아きはばら」와 「카ジュアル」의 결합한 「아きはば라카ジュアル」의 축약형태이다. 이것은 秋葉原에 모여드는 오타쿠의 패션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체크무늬 남방에 면바지, 안경을 쓰고

45) 窪蘭晴夫 (2002), pp86~88

배낭을 맨 스타일을 지칭한다.

단어의 축약형태는 말을 단축하는 만큼 원래의 의미가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중이나 어말이 아닌 어두의 부분을 남긴다. 어두가 어를 상기시키는 정보는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원래의 말을 쉽게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sup>46)</sup>

그러나 위 예들을 살펴보면 통신화자들이 제멋대로 줄이거나 어두를 생략하여 아무리 연상을 해도 본래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는 통신화자들이 단어의 축약을 은어와 같이 사용하여, 통신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게 만들어 재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1.2. 품사전환-る動詞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する」의 접속이다.<sup>47)</sup> 이외에 「事故る」「ミスる」등과 같이 「~る」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어미가 명사와 결합하여 동사화(動詞化)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사의 어두 2拍에 「る」를 결합한다. 「変化る」「退治る」「エンビる」「バィオる」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明治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정착하여 동사처럼 사용되고 있다.<sup>48)</sup>

통신언어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る動詞」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검색사이트 ‘google<sup>49)</sup>’에서 검색하다」의 의미를 지닌 「ぐぐる」, 「고백하다」라는 의미의 「告る」 등이 있다.

(69) トップスは薄手のタートルに簡単なジャケットで十分だ。今からサンプルねえかぐ

46) 窪菌晴夫 (2002), pp89~94

47) 勉強→勉強する / テスト→テストする

48) 米川明彦(2000), 「誤用の拡散」 『月刊 言語』 8月号, 大修館書店

49) www.google.co.jp



グってくるわ

- (70) 勝算確かになったから、あとはどのタイミングで告るかだけだな。電話やメールの告白はなしな。デート中に告ってほしい。

예문 (69)는 명사 ‘google(ググル)’의 어두 2拍 에 「る」를 결합한 형태이며, (70)은 명사 ‘告白(こくはく)’의 어두에 「る」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리고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る動詞」에는 문법적인 공통성도 존재한다. 일본어의 규칙변화의 활용에는 ‘5단형’과 ‘1단형’의 2종류이지만, る動詞 모두 5단형의 활용을 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0)</sup>

### 3.2.2. 불완전한 문(文)

통신언어는 전반적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못하는 일이 많은 한편 문의 종결 형태가 다르고 다양한 기호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어의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 등의 필수 성분을 갖추어야 하고, 서술어는 종결어미에 의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통신 언어는 서술어가 없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서술어가 있더라도 종결어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이 많다.

- (71)a あー一過食してええEEEEEEくぁwせdrftgyふじこlp!!氣が  
狂いそうだお!!

- (71)b 2007年だとしたら先過ぎじゃない? 来年のことを言うと鬼が笑いますよ。それ以前  
にそれまで続いてるかどうかくわなにをするやめくぁwせdrftgyふじこ  
lp

1

- (72) いやマテマテ、どうせ再放送するのなら、CCさくらが(ry

50) 三宅知宏(2002) 「乱れ」と規則性」 『月刊言語』

(71)a와 (71)b의 「くあwせ d r f t g y ふじこlp」는 키보드 문자열의 2번째와 세 번째 열을 번갈아 가면서 누른 것이다. 이것은 통신 화자의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체적인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외침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71)a의 예에서는 과식하여 견디기 힘든 상태를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키보드 문자열을 번갈아 누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71)b의 うわなにをするやめ는 인터넷 상의 문장에서 어미를 흐릴 때 쓰는 정형구의 하나이다.<sup>51)</sup> 이는 통신 화자가 자신의 글을 읽는 상대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세대의 언어습관 중 ‘얼버무리 표현(ぼかし表現<sup>52)</sup>)’이 통신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세대는 자신의 발언이 정당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청자의 생각과 어긋나 있지 않은지 두려워한다. 그러한 불안, 두려움에 대한 방책이, 단정회피나, 얼버무리 표현을 사용한다.

(72)의 「(ry」는 뒤에 올 말을 생략한다는 의미의 「(以下略」를 다시 축약해서 나타낸 것이다. (72)의 예를 보면, 서술어를 생략하고 ‘(ry’라고 나타내며 문을 완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문의 표현은 키보드를 누르는 횟수를 줄이는 경제성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읽는 상대에게 해석을 맡겨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피하려고 하는 신세대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3.2.3. 어순 바꾸기

51) はてなダイアリーキーワード(<http://d.hatena.ne.jp/keyword/>)

52) 佐竹秀雄(1995) 「若者言葉とレトリック」 『日本語学』 11月, pp53~60참조

통신언어 사용에서는 의미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 성분을 문장의 앞쪽으로 보내는 어순 바꾸기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

특히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차분하게 문장 성분의 순서를 맞추거나 필요한 성분을 모두 적을 여유가 없다. 통신화자는 먼저 전달하고 싶거나 상대방이 빨리 알기를 원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장 성분은 줄이고, 남은 성분들도 자연스런 순서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73) 758 名前:Mr.名無しさん

家に帰ってからちゃんと電話した?

765 名前:Mr.名無しさん

》 758

してないです…聞こえてたか微妙だったので

(74) だれだこの以上進展するのは難しいって言った香具師は

(73)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에 돌아가서 전화 했어’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자의 생각을 재빨리 문자로 표현하고 있다. ‘안했어’라고 답을 한 후 다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앞 문장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연결된 문장을 서술하고 있다.

### 3.3. 어휘론적 실태와 분석

어휘는 음운이나 문법에 비하여 변하기 쉽다. 물론 기본어휘는 상당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어휘는 여러 형태로 변해가게 된다.

#### 3.3.1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대란 원래의 의미가 사용되면서 이와 병행하여 다른 의미로도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통신언어에도 이미 사전에 있는 낱말이지만 그 뜻을 다르게 정의하여 의미영역을 확장하면서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75) 大体スペックの違いなんか始めから分かってんの。アニオタとかきもい事は明らかで、向うはお嬢サンなわけ。

(76) セットリストなど、ネタバレ<sup>53</sup>しないように注意せねば！でも、どこかで地雷踏んじゃうだろうなあ(´▽`;) )

예문(75)의 スペック(spec)는 본래 ‘specification’을 축약한 것이다. 본래 기계 등의 구조 또는 성능을 표시하는 사양서 또는 사양을 말한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スペック라는 단어를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상에서 スペック의 의미는 확장되어 이성의 신체적 특징, 취미, 학력, 일 등의 계급을 나타낸다.

예문(76)의 「地雷」는 본래 ‘땅속에 묻어 사람이나 전차 등이 밟거나 지나가면 터지도록 장치한 폭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79)의 「地雷踏んじゃう」는 문맥상 ‘폭약을 밟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地雷」는 건드리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해버리는 것을 「地雷を踏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기존의 의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재미와 신선함을 준다. 여기에도 규범에 구속되기를 싫어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

53)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나 결말부분을 언급해 버려 읽는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 또는 그러한 정보를 가리킨다.

화를 창출하려는 신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3.3.2. 외래어, 외국어 사용

일상에서도 갈수록 서양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이 늘어가고 있음이 현실이지만 통신언어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인터넷 통신 자체가 영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컴퓨터 부품 이름이나 사용법, 프로그램 이름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을 재미있게 쓰려는 의도에서 통신언어에 외래어나 외국어 낱말들이 동원되는 일도 특히 많다.

(77) ずっとクリームシチューご飯オンリー(だけ)だったが 実家からの荷物に入ってた  
ビーフシチューを作ってメシ投入してみた。目ウロコのうまさに感動

(78) 今週の学校はおしまい(お明日から三連休ですよw そのあと月曜学校行って、ま  
た火曜から3連休だもんなぁw でまた金曜日って土日と休みw 休みマンセー  
(万歳)(´▽`)/ (びく まあ、多分勉強中心だけドナー。

(77)은 영어 'only'를 가타가나로 표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예문 (78)의 경우도 연이은 휴일에 기분이 좋아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万歳'라는 일본어 대신 한국어의 '만세'를 가타가나로 써서 표기하고 있다.

### 3.3.3. 은어 사용

통신을 즐기는 신세대 들은 규범에 따른 속박을 싫어한다.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특성이 통신언어에도 나타나고 있다.

(79) 大学のサイトでが試験日程がupされてました。

(80) 最近よく鯖落ちるね。しかも同じところが。なんかの攻撃でも受けてるの

(79)의 업은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일본어 입력 상태에서 「up」라고 입력을 하면 「업」가 된다.

(80)의 「鯖落ちる」의 ‘鯖’는 서버(server)를 의미한다. 서버라는 단어에서鯖(さば)가 연상되는 데서 한자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鯖おちる」는 인터넷 상의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세대들은 이러한 통신상의 은어를 통해 연대의식을 쌓고 자신들만의 비밀스런 문화세계를 만끽하며 기성세대를 따돌리고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통신언어의 발생배경과 기능 및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통신언어에서 보이는 언어학적 특성을 ‘음운·표기’, ‘형태·통사’, ‘어휘’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음운·표기’면에서는 ‘おまえ’를 ‘おまい’로 표현하는 등의 음운교체, ‘おつかれ’를 ‘もつかれ’로 표현하는 음운첨가, ‘どうも’를 ‘ども’로 표현하는 음운탈락, ‘多すぎ’를 ‘大杉’로 바꾸어 사용하는 오타의 확산, 기호를 이용한 적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형태·통사’면에서는 의성어‘ドキュン’의 머리글자를 따서 조합한 ‘DQN’과 같은 ‘통신상에서의 신어’, 문장 끝에 ‘이하생략’이라는 의미의 ‘)ry’로 표기하거나 키보드 문자열을 번갈아 누르는 것으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문장에서 어미를 흐리는 형태의 ‘문장 줄이기’, 통신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성분을 문장의 앞쪽으로 보내는 ‘어순 바꾸기’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어휘’면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갈 때 ‘おちる’가 ‘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의 ‘의미의 변화’, ‘외래어·외국어 사용’, ‘은어 사용’이 통신언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흔히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한다. 100년 전의 말과 현재의 말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이는 언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온 결과인 것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언어차가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며, 또 누구나 쉽게 체험하는 일이다. 더욱이 컴퓨터 통신이 보급되면서 그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언어의 사용은 통신언어에 익숙한 통신화자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유희로서 즐거

움을 줄 수 있으나 통신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에게 있어서는 암호와도 같아 쉽게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이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어법’을 산출해 내고 있다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언어를 창조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통신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조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언어를 언어가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예문출전>

中野独人 (2004), 『電車男』 株式会社新潮社

<http://www2.2ch.net/>

<http://d.hatena.ne.jp/>

<http://www.casphy.com/>

### <외국문헌>

#### <단행본>

米川明彦 (1998), 『若者語を科学する』, 明治書院

窪蘭晴夫 (2002), 『新語はこうして作られる』, 岩波書店

佐藤喜代治 (1982),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橋本良明 編 (2005), 『メディア』, ひつじ書房

金田一春(1988), 『日本語(下)』, 岩波親書

#### <사전류>

井上史雄외(2002), 『新しい日本語』, 東洋書林

南伸坊 (2002), 『現代用語50』, 朝日新聞社

横井秀明 (2006), 『現代用語の基礎知識』, 自由国民社

#### <논문>

富田 英典 (2002), 「携帯電話と若者の言語生活」 『日本語学』 11月号, 明治書院

杉本 卓 (2001), 「マルチメディア時代の話し言葉と書き言葉」 『月刊 言語』 1月号, 大修館書店

三宅和子 (2000), 「ケータイと言語行動・非言語行動」 『日本語学』 10月号, 明治書院

松田美佐 (2000), 「ケータイによる電子メール急増とその影響」 『日本語学』 10月号, 明治書院

- 諸橋泰樹 (2005), 「電車男現象」 『月刊 言語』 7月号, 大修館書店
- 米川 明彦 (2000), 「誤用の拡散」 『月刊 言語』 8月号, 大修館書店
- 太田一郎 (2001), 「パソコン・メールとケータイ・メール」 『日本語学』 9月号,  
明治書院
- 伊藤雅光 (1993), 「チャットと呼ばれる"電子しゃべり"について」 『日本語学』, 12  
月号, 明治書院
- 佐藤栄作 (1991), 「若者のカタカナ使用と外来語表記」 『日本語学』, 7月号, 明治書  
院
- 佐竹秀雄 (1995), 「若者言葉とレトリック」 『日本語学』, 11月号, 明治書院
- \_\_\_\_\_ (1998), 「情報化時代と表記」 『日本語学』, 9月号, 明治書院
- 富田英典 (2002) 「携帯電話と若者の言語生活」 『日本語学』, 11月号, 明治書院
- 高元条治 (2001), 「チャットの楽しさと空しさ - FTF志向のCMC」 『国文学』, 10月号,  
学灯社

### <한국 문헌>



### <단행본>

- 이정복 (2003), 『인터넷 통신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 이한섭 (1997), 『일어학 개설』, 한신문화사
- 전병용 (2002), 『매스미디어와 언어』, 청동거울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논문>

- 洪慶河 (2002),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李仁淑 (2004), 「일본 신세대의 언어문화와 造語法에 관한 고찰」, 군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Abstract>

A consideration on a communication language of Japanese  
new generation

Kim Seung-hee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Lee Chang-ik

An info-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rapidly engaged in everyday life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which causes a lot of changes in language. In a new environment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s, new languages taking a unique form came into existence with the new terms related to a high information society such as a computer communication, mobile phone and an internet.

This paper is designed for studying a communication language and thinking of Japanese new generations, and I defined a communication language as a phoneme or a morphologic variation showed in an electronic bulletin board and a web diary and languages created newly, meanings given newly and a special symbol on a computer communication. And I set up the new generation class who has an active life on a computer communication and creates a new language as an object.

There are three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showed on a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such as 'a phoneme and a notation', 'morphology and syntax' and 'a vocabulary'. First, in terms of 'a phoneme and a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notation', a phonemic change, addition and omission, a frequent mistake in typewriting and using symbols were showed clearly. Second, in terms of 'morphology and syntax', 'new language on a computer communication', 'shortening a sentence' and 'changing a word order' were showed. Finally, in terms of 'vocabulary', 'changing a meaning', 'using a word of foreign origin and a foreign language', 'using a jargon' were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 computer communication.

Especially, a frequent mistake in typewriting is prominent on an internet communication. A mail, an internet conversation room and a bulletin board have few strain in a grammatical system or forms of expression. Because inputting a keyboard is slower process of being understood than speaking, users have generous attitudes to a misprint. So there is a phenomenon of using an intentional misprint by the spread of a misprint among internet communicators who is pursuing fun.

Although this use of the communication language is fun among people who is familiar with that, it could be a code among the older generation. Moreover, Japanese language learn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usage between the communication language and the normative grammar. So the communication language is evaluated negatively for the reason that it breaks the existing grammar.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evaluate the communication language positively by its function of creating a new usage. Also in educating the communication language to Japanese language learners, it needs to understand various newly-coined worlds.

Through the internet, the new generation not only pursues convenience but also develops communication by expressing language creatively and funny. The new generation's communication is not changed by the internet communication. I rather think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a trend peculiar to the new generation and the modern character is in the use of the internet among the new generation.

## <부록>

<HATENA DIARY(www.hatena.ne.jp)>

cutting Edge (2005.11.18)

さいたまだーwww

空耳を見て思い出したけど、二週間くらい前の演習で発表を聞いている時に、土研モデルというのが出てきて、何度聞いてもDQNモデルにしか聞こえなかったので、笑いそうになった。

ナナメ45度 (2005.12.27)

あーーーー過食してええEEEEEEEEEEEEEEEE q a w s e d r f t g y ふじこ l p ! ! ! ! 気が狂いそうだお!!

でも土日食いまくったばっかりだし、死ぬ気で我慢!ガマン!がまん!!!うおおー、具合だー!!オス!早く寝る!!

世の中には知らないほうが...(以下略) (2006.01.03)

VITALIJ KUPRIJ'S REVENGE はいはいびあのびあの いまいち煮え切らない歌メロ...

STILL REMAINS『OF LOVE AND LUNACY』メタルコアとかカテゴリ分けされてるせいで手出しする気にならずにいたが、聴いてみたらこりゃ、おい! SOILWORK的ヴォーカルスタイルの正統派スウェディッシュメロデスサウンドじゃないか!! どう聴いてもツボに入りました。本当にありg ( r y  
2曲目のサビに萌え氏んだww

Hoo Poo 『のえのえばー』なウンチク日誌 (2006-1-18)

緊急車両には道をあけろ

■[ブログ]後ろに気をつけろ! DQNな香具師!  
カッ飛びで街を走り抜けるHoo Pooだが、緊急車両には道をあけます。特に、救急車には敏感です。今日、彼女が製菓会社の勉強会で夜遅くなるので、子どもの面倒を見るため早めに帰宅の途についたのだが、バックミラーに赤い回転灯。窓を少し開けると、救急車のサイレンの音。追い越し車線から走行車線に入り、交差点も近いので、減速したら、走行車線を走っていた香具師が救急車の前に飛び出す様に私の車を追い抜いて交差点を直進して行った。急に走行車線に割り込んできた私の車を威嚇するかのように...救急車は急ブレーキを踏んだようで、一瞬間揺れながらも、その後無事交差点を左折して行ったが...搬送されている患者も急な車動に驚いただろう、意識があるならば。カッ飛びで走っていた車が急に減速したのだから、何かあるって察しろよ。交機のバトかもしれんし! DQNな香具師!! 以前に、救急車で意識不明のまま病院に搬送された事があるHoo Pooには、とっとも許せない事であった。もともと、私は意識不明だったから、同様の状態で搬送されている最中に事故にあっても、意識不明のままだったと思うけど。ホント、命が掛かっている場合が多いんですから!! 私が乗ったのはこんなのだったかな? 病院に着いた時点では意識不明だったから、殆ど記憶が無いが...リンク画像故、リンク切れスマソ

しーらんす (2006-1-21)

TSUTAYAで借りてきたCDの中から2枚紹介。

GLAMOROUS SKYを聴いてみた。

年末の音楽番組ではアコースティックVer.とやらが流れまくってたせいか、自分的には逆にオリジナルの方が新鮮な感じ。個人的にはCRESCENT MOONが入ってたのが、グッチョイだと思った。

イエイ(\*´▽`)ノ☆ (2006-02-02)

■視力感

帰宅してからのすごい腹力感。

前にリタリン飲んで薬が抜けたときの感じです。(リタリンみたいに精神的にはキテませんよ。) きっとカフェインのせいだろうと(r y

### (´)(´)(´)ヒソヒソ (2006-02-06)

あーあ

雪積もってるよorz

明日の通勤イヤだな・・・

### 走るナマケモノ (2006-02-06)

■[メモ]迷う 20:47

3月4日はどちらに行こうか。

DMちゃんのUFOか、スライドショー。

DMちゃん5日だと思ってたアルヨ！！がっくし。

もうアメリカいっちゃまってえのに。

見とけるうちに見とかねばどと思ってるのだが。迷うよう。

■[テレビ] 00:27

GROWNリポート見えます。すくーびーカッチョイイ！新曲のPVめた良いねえ。

4日のイベントの模様がチラリと流れましたね。

ちゃんとした放送は3月だそうだ。

■[デキゴト] 01:11

もくもくお仕事。帰道、雨が雪にかわりました。

### はりぼて日記(2006-02-09)

チョコ大好きなんすよ。で、思い出した事が。

バレンタイン・デーにね、カーチャンやらパーチャンやらにチョコ貰うじゃないすか。で、ちっせえ頃は妹もチョコが欲しくて欲しくて拗ねちゃって、結局カーチャンもパーチャンも妹にチョコをあげていた。

そして漏れは本命チョコを殆ど貰った事が無いのであります。小5の時に1回のみ。あとは義理がちらちら。テラサミスwwwwww

ま、今更モテてもしゃあないよな。

### <2ちゃんねる (www.2ch.co.net)>

シチューを飯にかけて食う香具師の戯→

1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8(土) 22:30:46

ビーフシチューで試したら結構いけた

2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8(土) 22:34:43

必ずやるけど？

3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8(土) 22:43:42

クリームシチューにかけるのが好き。

基本的にスープ類をご飯にかけるのが好きなのかも。

4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20:35

>>3 に同意

5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24:29

小さい頃当たり前だと思ってた

でもテレビ見て違うと分かり衝撃を受けた…

今はたまにやる

6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35:19

>>3

シチュー最高っすよねー！！

7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37:27

普通だろ

8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49:31

カレーよりはスキだな～

9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0:58:26

さすがにコンスープはむりだろうなあ・・・

ところで クリームシチュー

なぜか うちでは できたての熱々はスープ皿(別皿)で食べる。

翌朝 冷たくなりポテッとなった状態は熱いごはんにかけてたべますう・・・

10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1:01:15

そういうシチューエイションもあるさ。

11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1:02:34

>>9

ママさんよく考えてるなあ

12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1:06:21

ビーフもホワイトもご飯によく合うよね。

13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1:44:59

俺もクリームシチュー派

>>3に一票 ♪

具は人書 ジャガ コーン 舞茸 ブロッコリ

でも大概ブロッコリが崩れて緑黄色シチューになる orz

14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2:31:15

家はかけるよ。修学旅行でなぜかその話題になってつかげないって

言っちゃった。

15 : もぐもぐ名無しさん : 2005/10/09(日) 07:23:23

うちの家庭ではホワイトの時は米でビーフシチューの時はなぜかフランスパンが用意されてた。べつにどっちも米でいいのに。

ちなみにグラタンの時もパンだった。

<キャスピ(www.casphy.com)>

・高校掲示板：誰かきて～話そう～

1 ゆうと [2005/12/16(金) 13:35:10]

誰かきて～話そう

2 浩太 [2005/12/16(金) 13:41:17]

♪ \ ( ^ - ^ | 話そう | ^ - ^ ) / ♪

3 ゆうと [2005/12/16(金) 13:43:09]

よろしく！！浩太はどこ住んでんの??

4 浩太 [2005/12/16(金) 13:46:21]

九州だよ [-\_-] ゆうとは?

- 5 ゆうと [2005/12/16(金) 13:52:59]  
まじ?!俺も九州(^-^)/何歳??俺は高3。
- 6 YUKI [2005/12/16(金) 19:30:30]  
どーも(´▽`\*)
- 7 すぺ [2005/12/16(金) 23:12:40]  
こんちわ(><)b
- 8 ゆうと [2005/12/19(月) 09:02:32]  
遅れました。よろしく!!
- 9 こずえ [2005/12/19(月) 09:05:10]  
話そう★
- 10 ゆうと [2005/12/19(月) 09:06:51]  
いいよ!何歳?
- 11 こずえ [2005/12/19(月) 09:12:12]  
高校③ネン生なのだ~~↑  
ゆうとは??
- 12 ゆうと [2005/12/19(月) 09:16:08]  
おお~タメヤん!!俺も高3ですよ。今、何してんの?俺は授業中なんよ...
- 13 こずえ [2005/12/19(月) 09:19:25]  
今日は風邪で学校休んでて。。。今家にいるにゃん♪◎
- 14 ゆうと [2005/12/19(月) 09:23:19]  
かぜひいとるんやったら、ちゃんと薬のんで早くとかんばたい。笑
- 15 こずえ [2005/12/19(月) 09:27:56]  
ありがとう♪でも昨日寝すぎたんだあ。( ^ @ ^ ) ゆうとはクリスマスの予定あんの↑?
- 16 こずえ [2005/12/19(月) 09:28:49]  
ありがとう♪でも昨日寝すぎたんだあ。( ^ @ ^ ) ゆうとはクリスマスの予定あんの↑?
- 17 MIYU [2005/12/19(月) 09:30:52]  
おはよう☆授業ひまだがや
- 18 ゆうと [2005/12/19(月) 09:32:36]  
クリスマスは友達と楽しく過ごすよ(^)/笑 こずえちゃんは?
- 19 ゆうと [2005/12/19(月) 09:36:21]  
MIYUよろしく!!授業中大丈夫なん??(^;
- 20 MIYU [2005/12/19(月) 09:38:03]  
なにも言われないよ、いいんだか悪いんだか笑
- 21 かっちゃん [2005/12/19(月) 11:40:35]  
お初(o^o^o)うちも暇なんで来ちゃいましたあ↑↑
- 22 カナ [2005/12/19(月) 14:35:32]  
あたしも暇だから来ました!
- 23 かっちゃん [2005/12/19(月) 14:46:33]  
うちの本名がかなって言うんだあ(o^o^o)
- 24 カナ [2005/12/19(月) 14:50:43]  
そうなの?奇遇だね!!
- 25 かっちゃん [2005/12/19(月) 15:29:26]  
マジ仲良くしようぜ!(o^o^o)
- 26 カナ [2005/12/19(月) 15:34:29]



うん！よろしくね！

27 かっちゃん [2005/12/19(月) 15:45:09]

クラキヤ登録してる

28 カナ [2005/12/19(月) 15:46:57]

いや、してないよー！

29 りお [2005/12/19(月) 21:42:32]

こんにちわ☆ うちも仲間に入れて(\*U\*)

30 サトル [2005/12/19(月) 23:53:57]

こんちわ・・・サトルっすよろしくです！

31 ゆうと [2005/12/20(火) 11:44:22]

またまた授業中に来ました！！(^-^;

#### ・スタイル

1 拓 [2005/12/09(金) 18:52:36]

初めまして!!自分は高2の男子なんですが、身長は...154CMしかないんです；；しかもこれ以上伸びる見込みはないんですねこれが↓そこでいっつも困るのが、服を選んでる時に「これだ!!」と思っても基本的にでかいですよね...でかめで着ると言ってもでかすぎて笑 どこにいけば自分のサイズの服って見つかりますでしょうか??

2 りりい [2005/12/10(土) 16:20:53]

牛乳飲んだらっ・・・あた163だよ一女なのにおおきくいやっ(;\_;

3 浩平 [2005/12/10(土) 22:50:45]

始めまして。僕は、拓さんと同じで身長が157cmぐらいしかないんですよ。だから、僕もなかなかサイズが合う服が見つかりません。だれか、アドバイスください！  
お願いします。

4 マーシー [2005/12/10(土) 23:31:09]

175のSHOGOはLサイズの古着とか着るっていったなあ(・▽・)

5 かい [2005/12/11(日) 00:12:58]

おれ・・・150しかねえ

6 匿名希望 [2005/12/11(日) 00:14:42]

ジャケットとかならレディースでも全然いけると思いますが^^ 男女兼用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し、通販なんか見てみると意外とサイズ小さいのあったりしますよ

7 拓 [2005/12/11(日) 15:02:16]

皆さんアドバイ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りりいさん・・・牛乳はもう飲み飽きました笑 あんまり牛乳と身長は関係ないらしいです!!背高くて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自分は小さくてもあんまり気にしてませんよ♪

>>浩平さん・・・そうなんですよ↓普通に買っても、普通にでかいですよ。。ちなみに何サイズ買ってますか??なるほど、古着なら色んな種類やサイズがありそうですね！最近ちょっとレディースを着てみたんですが、ぴったりなんです笑 でもジャケットとかのボタンの位置が逆だったりするのは気にしないでいいんでしょうか??

8 あみか [2005/12/11(日) 17:11:15]

WWL!とかに 男の子の服があったよー レディース着てる人でも お洒落に着こなしてる人はいるわけだし 大丈夫だと思えるよん ボタンの位置が逆なのは 逆にお洒落として・・・それか、自分でリメイクしたりするといいと思うっ\*

9 チビ [2005/12/11(日) 17:15:31]

俺も高2で156しかない。。

服のサイズがないよ・・・なんでメンズショップにはSサイズがないんだ!!だから俺は古着屋行って 自分にあったサイズあさってるよ♪

古着ならけっこー150台でもきれる服あるしね～

10 りい [2005/12/11(日) 17:33:40]

みなは一ん(^o^)あたしに敬語じゃなくていいよ(>\_<)高校生じゃ・・・ぜんぜんちがいまあーす。すごーくした・・・

**大学1年生: 暇な1年生生まれ～“o(><)o”**

608 こまち [2005/12/04(日) 17:53:46]

リサ>>私もかたりあいたかったよおお～<(T-T)>

かっぱ>>バイト頑張れ☆だからメール送るって!!!あつ、リサにも送るんだっ☆/>■<) 2人供アド～～(笑)

609 リサ [2005/12/04(日) 18:06:44]

マジでアド交換しちゃう?!(笑)

610 かっぱ [2005/12/04(日) 23:36:00]

しよ②(笑)

611 リサ [2005/12/04(日) 23:45:42]

どうやってする?(・▽・)

612 こまち [2005/12/05(月) 00:07:44]

2人ともクラキヤスに登録してる??

613 かっぱ [2005/12/05(月) 00:19:59]

クラキヤス

614 かっぱ [2005/12/05(月) 00:20:43]

クラキヤス?

615 リサ [2005/12/05(月) 00:38:33]

多分登録してるよ★

616 かっぱ [2005/12/05(月) 00:49:30]

なんじゃそりゃ～!!

617 リサ [2005/12/05(月) 00:58:14]

クラブキヤスフイってやつで、登録するとメールできるようになるんだよ(・▽・)

618 かっぱ [2005/12/05(月) 01:36:17]

へ～♪

